



2023.01.31.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최세중 경제분석관

작성 | 진익 경제분석국장

이규민 경제분석관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김경수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박승호 경제분석관	최세중 경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유근식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김상미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의 정리·분석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대외경제 현황 파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 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대부분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경제가 직면한 8대 현안을 선정하여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재정, 투자, 수출, 인구, 기후·에너지 위기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I장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II장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III장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금융), IV장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재정), V장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투자), VI장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수출), VII장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인구), VIII장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의 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요 약

I.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 1

1. 검토 배경	1
2.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3
3.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5
4.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8

II.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 15

1. 검토 배경	15
2. 현황	16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22
4. 현안 분석	24
5. 요약 및 시사점	36

III.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 43

1. 검토 배경	43
2. 현황	4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46
4. 현안 분석	47
5. 요약 및 시사점	66

IV.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 67

1. 검토 배경	67
2. 현황	68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75
4. 현안 분석	76
5. 요약 및 시사점	85

V.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 87

1. 검토 배경	87
2. 현황	8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91
4. 현안 분석	94
5. 요약 및 시사점	100

VI.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 107

1. 검토 배경	107
2. 현황	10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17
4. 현안 분석	119
5. 요약 및 시사점	128

VII.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 131

1. 검토 배경	131
2. 현황	133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38
4. 현안 분석	140
5. 요약 및 시사점	151

VIII.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 153

1. 검토 배경	153
2. 현황	15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57
4. 현안 분석	158
5. 요약 및 시사점	178

요 약

I.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

- 국내 경기의 하강 전환 가능성이 큰 데다가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도 가시화
- 세계은행은 1월 10일 세계경제성장률을 1.7%로 대폭 하향 조정(-1.3%p)
-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거시정책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 경기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자칫 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은 경기 하강 속도를 가파르게 할 가능성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고용상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

□ 2023년 우리 경제 성장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

- 최근의 경기둔화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수출 부진에 주로 기인
-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 2022년 3/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연간 성장률은 2.5~2.6%로 추정
- 2023년 우리 경제 성장경로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2023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하였으나 전망의 하방 위험이 대부분 실현된 데다 세계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

□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이 긴요

- 거시경제 정책여건 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고용상황 등 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
- 또한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미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 단기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돌발상황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
 -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이탈 조짐을 보이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인방안을 강구

□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

- 먼저 2023년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들을 심도 있게 분석
 - 인플레이션 상황 해소가 거시경제 정책여건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판단 아래 진정 시기를 점검
 - 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기간 등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
 - 국제비교 등을 통해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검토
- 다음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재무건전성에 따른 경기수축기 기업 투자 위축 가능성을 분석
 -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점검
- 마지막으로 혼인과 기후·에너지 위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고민
 - 혼인하지 않는 사회 분석을 통하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
 -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I.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1. 검토 배경

□ 주요 전망기관들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

- 수출 둔화, 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신규 투자수요 위축 등에 주로 기인
 - IMF와 OECD는 최신 전망(10월 및 11월)에서 우리나라 금년 실질성장률을 2.0% 및 1.8%로 발표(각각 0.1%p 및 0.4%p 하향 조정)
 - 정부(12월)와 한국은행(11월)도 올해 실질성장률을 1.6% 및 1.7%로 전망(각각 0.9%p 및 0.4%p 하향 조정)

□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이 전망의 주요 위험요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분쟁 지속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이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가세
- 또한 한·미 간 정책금리차 확대, 무역적자 지속 등으로 환율 안정기반도 약화
 - 환율불안이 2차 파급효과를 통해 국내 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
- 채권시장에서 시작된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일단 진정되었으나 기업들의 자본조달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

- 중국은 경기둔화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발이 확산되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2022.12.7.)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
-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경제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것으로 평가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02-6788-3733)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02-6788-4656)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02-6788-3775)

- 중국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나, 방역완화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등 하방위험도 동시에 확대

□ 세계은행은 1월 10일 세계경제성장률을 1.7%로 대폭 하향 조정(-1.3%p)

-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미국, 유로지역,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동반 약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
- 특히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포기 이후 중국경제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강조¹⁾

□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조합 및 미시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지혜가 요구

- 경기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 지속, 건전재정 기조 강화 등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대응에 제약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1.)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2022.12.23.)
- 경제상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미시적 수단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면한 제약을 극복해 나갈 필요
- 아울러 취약계층 등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경제 활력 유지에 최선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최소화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이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

1) [BOX 1]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리스크” 참조

2.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 인플레이션이 거시정책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적극적 경기 대응에 어려움
 - 경기방어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자칫 물가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은 경기 하강 속도를 가파르게 할 가능성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위해 지출 확대보다는 집행관리 등을 통한 경기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1.)
 -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집행관리, 금융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당국간 긴밀한 정책공조 등을 강조
 - 다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는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으나 자칫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제 불확실성에 유의하겠다는 입장 (“2023년 통화신용정책운용방향,” 2022.12.23.)
 - 이 밖에 공개시장운용 유효성 제고,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지속, 외환시장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 대비 등도 강조

□ 정부는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 활성화와 투자촉진 및 규제혁신을 강조

- 수출 전략회의를 통해 5대분야²⁾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재정 등을 통한 지원 확대, 수출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는 계획
 - 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수주지원을 강화
- 또한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 증대 효과가 큰 7대분야³⁾에 대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
 - “신성장 4.0전략”을 마련,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R&D 지원 패러다임도 전환하여 민간중심 활력제고 방안도 함께 모색
- 이 밖에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하여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에 나서고 유통고도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

2) 반도체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3)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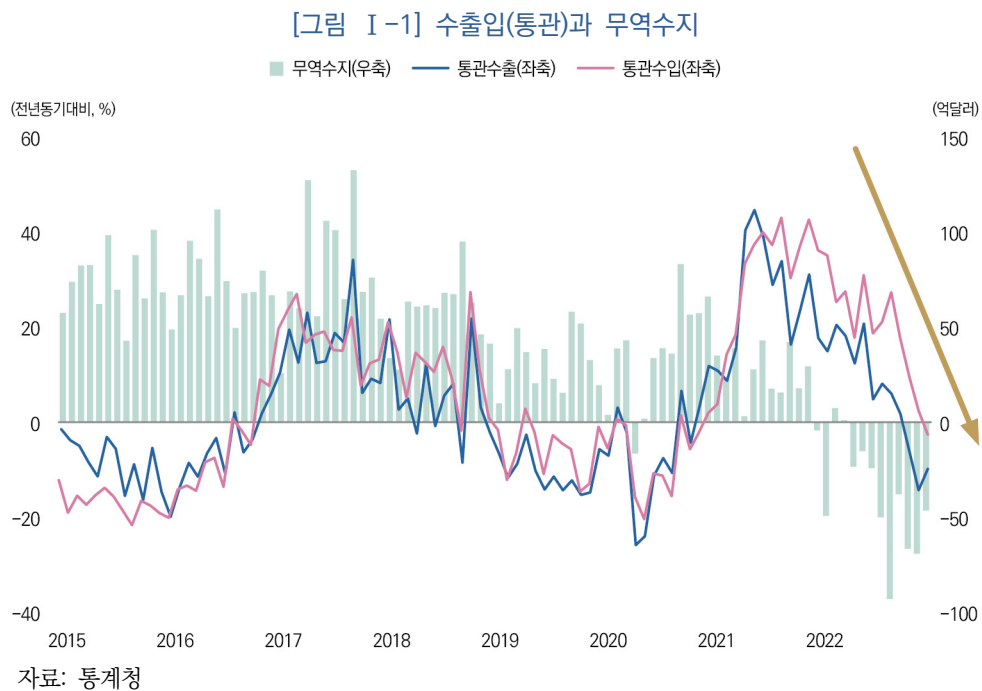
□ 중장기 과제로는 구조개혁, 경제혁신, 인구·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에 방점

- 정부는 미래대비 체질개선 전략과제로 3대 구조개혁, 3대 경제혁신, 인구·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강화를 제시
 - 3대 구조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 3대 경제혁신: 금융혁신, 서비스혁신, 공공혁신
 - 인구·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과제발굴 및 논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경제안보강화: 공급망 체계 고도화, 투자유치, 경협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3.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 최근의 경기둔화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수출 부진에 주로 기인

- 지난해 우리 경제는 소비, 서비스업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경기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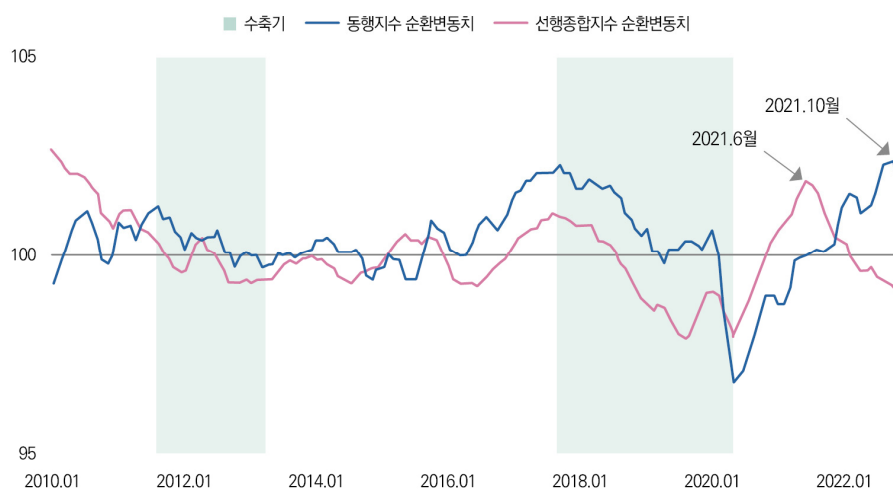
□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긴축으로 국내금리도 가파르게 상승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1년말 1.0%에서 2022년말 3.25%까지 인상
 - 국고채(3년) 금리도 2021년말 1.8%에서 2022년말 3.7%까지 상승
-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관련이 깊은 회사채(3년, AA-) 금리는 2022년말 5.23%로 전년말 대비 두 배 이상(2.8%p) 상승
 -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인 신용스프레드도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말 1.7%p까지 확대(전년 말의 0.6%p 대비 1.1%p 상승)
 - 다만 최근에는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서 단기자금시장 불안도 진정

□ 국내 경기는 2022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수축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¹⁾

- 국내 주요 경제지표는 10월 이후 하강 움직임이 뚜렷
-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2022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
 -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

[그림 I-2]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통계청

- 2020년 5월 저점(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이후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정점은 2022년 7월(연속신호추출법) 또는 9월(네프치 확률모형)로 추정²⁾
 - 연속신호추출법과 네프치(Neftci) 확률모형은 경기전환점의 객관적 식별 기준을 제시하는 장점³⁾
 - 다만 모형분석 결과에는 추정오차 및 거짓 신호(false signal)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1) NABO경제동향(2022.12월), “경기분석 기법을 이용한 최근 국내 경기상황 점검” 참조

2) 통계청은 2019년 9월에 2017년 9월을 잠정 경기정점으로 설정·공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가장 최근의 공식 경기전환점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20년 5월을 경기저점으로 자체 추정하고 그 이후의 경기상황을 점검. 다만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자체 추정치로 통계청 기준순환일과 무관함.

3) [BOX 2] “경기분석 기법에 의한 최근의 경기정점” 참조

□ 2022년 4/4분기 성장률은 2% 내외, 연간 성장률은 2.5~2.6%로 추정

- 2022년 11월까지의 주요 월간 경제지표 실적치와 초단기 예측모형(당분기 GDP성장률 추정용)을 추산에 활용⁴⁾
- 분석결과 경제 성장률은 4/4분기 2% 내외, 연간은 2.5~2.6% 정도로 추정
 - 모형에 의한 4/4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2.4%, 이를 반영한 연간 성장률은 2.8%로 추산되었으나 지난 10월 이후 경기하강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⁵⁾
- 한편 2022년 성장률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5%(각각 12월 및 10월), 한국은행은 2.6%(11월)로 예상한 바 있음
 - 이에 상응하는 4/4분기 성장률은 1%대 초반

[표 I-1] 시나리오별 2022년 실질GDP 성장률 추정

(단위: 전년동기대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환산치	연간 추정치	전망기관 및 시점
성장률	3.0 (0.6)	2.9 (0.7)	3.1 (0.3)	1.5 (-0.3)	2.6	한국은행(11월)
				1.1 (-0.5)	2.5	정부(12월), NABO(10월)

주: 1. () 안은 계절변동조정계열 전기대비 성장률

2. 음영은 기관별 연간 전망치에 상응하는 4/4분기 성장률을 시산한 값(전년동기대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한국은행

□ 2023년 우리 경제 성장경로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2023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
- 그러나 전망의 하방 위험이 대부분 실현되고⁶⁾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로 새로운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
- 이에 따라 2023년 우리 경제 성장경로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1%p 하락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0.7%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⁷⁾

4) [BOX 3] “초단기 GDP 예측모형” 참조

5) 전체 21개 이용지표 중 전년동기대비 감소지표 수: 9월 5개 → 10월 9개 → 11월 10개

6)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

7) 2000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세계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 간 검정탄성치

4.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이 긴급

- 거시경제 정책여건 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고용상황 등 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
- 또한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미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공유, 원스톱 솔루션 마련 등 통합적 노력이 중요

-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역할 분담, 시장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공유, 원스톱 솔루션 제공 등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중요
- 단기적으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돌발상황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
 - 예컨대 최근 중국으로부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외국자본⁸⁾을 국내로 유인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리스크 관리가 중요
 - 단기 외화자금의 유입은 한 편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나 다른 한 편으로는 높은 변동성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교란할 소지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가 바람직
 -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어왔던 과도한 규제 등을 제거하는 한편 원활한 FDI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용도 고려해 볼 필요

[표 I -2] 대 중국 투자자금 순 유출·입

(단위: 억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1~3분기
직접투자	923	503	994	2,059	486
자본투자	1,069	579	955	510	-2,606
주식	430	156	-510	-25	-190
채권	639	424	1,466	534	-2,416

자료: 국제수지 자본계정, 중국외환관리국(SAF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8) 그 간의 강력한 격리 조치 및 그에 따른 생산차질,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의 예고 없는 완화 등으로 중국 내 경영환경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탈

□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

-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는 더 나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우선 리스크 요인들을 심도있게 분석
 - 인플레이션 상황 해소가 거시경제 정책여건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판단 아래 진정 시기를 점검
 - 미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기간 등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
 - 국제비교 등을 통해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검토
- 다음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재무건전성에 따른 경기수축기 기업 투자 위축 가능성을 분석
 -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점검
- 마지막으로 혼인과 기후·에너지 위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고민
 - 혼인하지 않는 사회 분석을 통하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
 -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그림 I-3]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BOX 1]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리스크

□ 세계은행은 최신 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1월 10일)

- 2022년 6월 대비 조정 폭: 세계 $-1.3\%p(3.0 \rightarrow 1.7)$, 중국 $-0.9\%p(5.2 \rightarrow 4.3)$
 -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투자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유로지역·중국 경제의 동반 약세 등을 하향 조정의 주 요인으로 제시
 - 다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 발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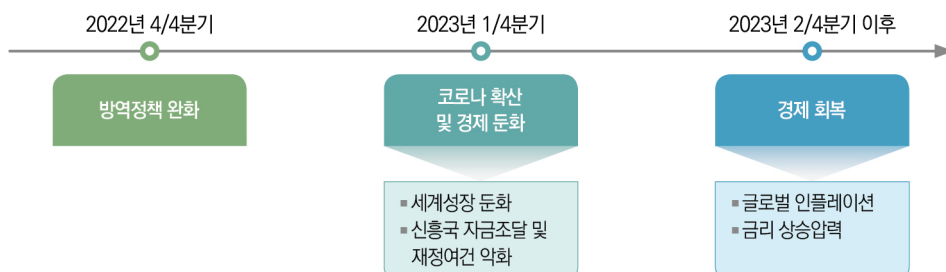
□ 전망의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중국을 지목

- 코로나19 방역완화(2022.12.7.)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부족, 고령자의 낮은 백신 접종률, 농촌 지역의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1/4분기 중 사망자가 15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도(2023.1.7.)
- 전미경제학회(AEA, 2023.1.6~9일 개최)에서도 로고프(Rogoff) 하버드대 교수 등은 중국을 2023년 세계경제의 첫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목

□ 중국경제는 1/4분기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2/4분기 이후 회복될 가능성

- 세계은행은 기준전망에서 중국경제가 1/4분기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2/4분기 이후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
- 1/4분기 중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고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
- 2/4분기 이후에는 회복이 본격화될 예상이나 이 경우 중국경제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지속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상존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 예상경로와 세계경제 리스크]



[BOX 2] 경기분석 기법에 의한 최근의 경기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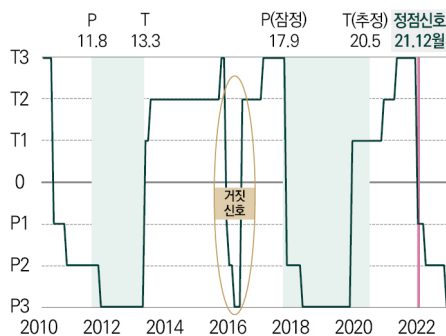
□ 2020.5월을 경기저점으로 추정하고⁹⁾ 이후의 경기상황을 점검

- 다만 이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로 통계청 기준순환일과는 무관
- 통계청이 공표한 가장 최근의 경기전환점은 2017년 9월(잠정 정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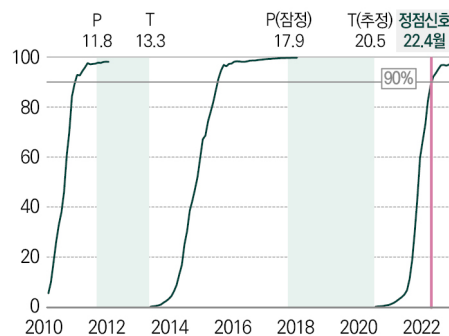
□ 2022년 3/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국면이 하강 전환되었을 가능성

- 연속신호추출법에 따르면 추정 경기정점은 2022년 7월
 - 2021년 12월 경기정점 신호(T3 → P1)가 발생하였으며 동 신호의 평균 선행시차는 7개월
- 네프치(Neftci) 확률모형에 의한 추정 경기정점은 2022년 9월
 - 2022년 4월 경기정점 신호(임계치 90% 상회)가 나타났으며 동 신호의 평균 선행시차는 5개월
- 경기전환점은 경기전환 신호가 나타난 시점에 동 신호의 평균 선행시차를 더하여 추정

[연속신호추출법]



[네프치 확률모형(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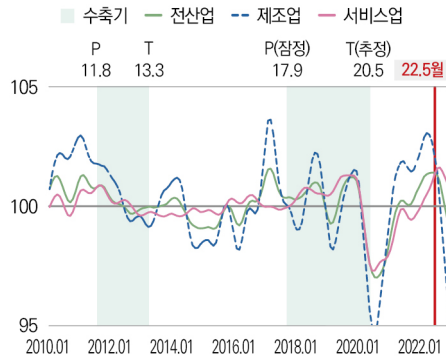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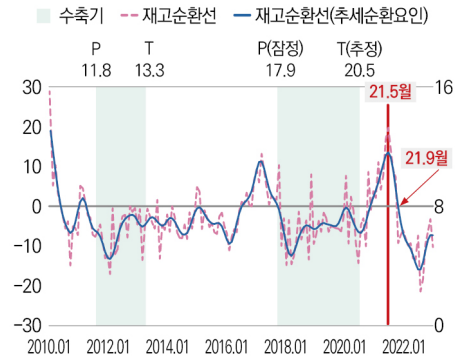
□ 개별지표 순환변동치¹⁰⁾를 보더라도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 움직임이 뚜렷

- 9) 실질GDP,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주요 경기지표의 순환변동치가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점 등을 근거로 추정
- 10) 순환변동치는 분석대상 지표에서 경기순환과 관련이 적은 추세·계절·불규칙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경기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환변동치를 산출.
(1단계) 개별 지표에 X-12-ARIMA 기법을 적용하여 추세순환변동요인(TC) 추출
(2단계) 1단계에서 구한 추세순환변동요인(TC)에 HP필터를 적용하여 추세를 제거하고 순환요인(Cycle)만을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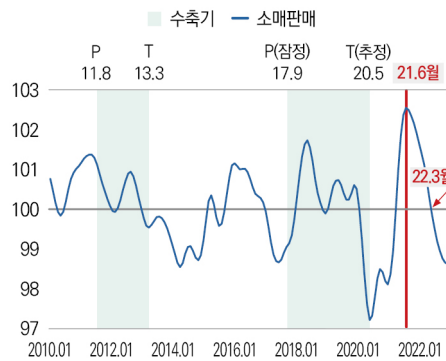
[생산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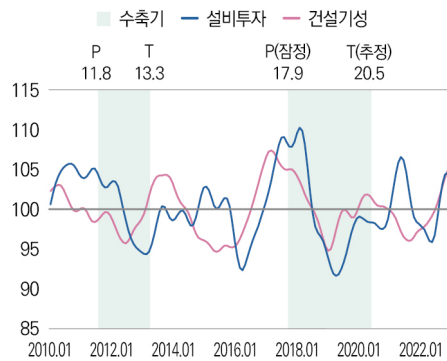
[제조업 재고순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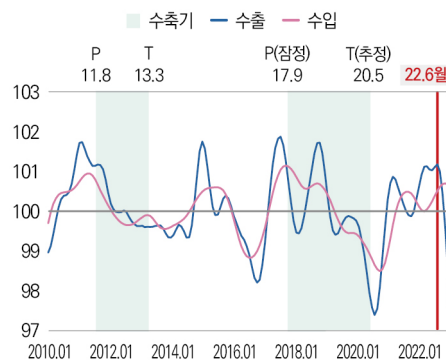
[소매판매액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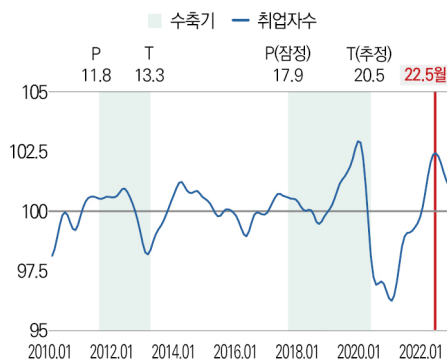
[설비투자지수 및 건설기성 순환변동치]



[수출입(실질) 순환변동치]



[취업자수 순환변동치]



주: 1. 음영부분은 기준순환일 상 경기수축기

2. 기준순환일 중 2017년 9월은 잠정 정점(통계청), 2020년 5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저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 3] 초단기 GDP 예측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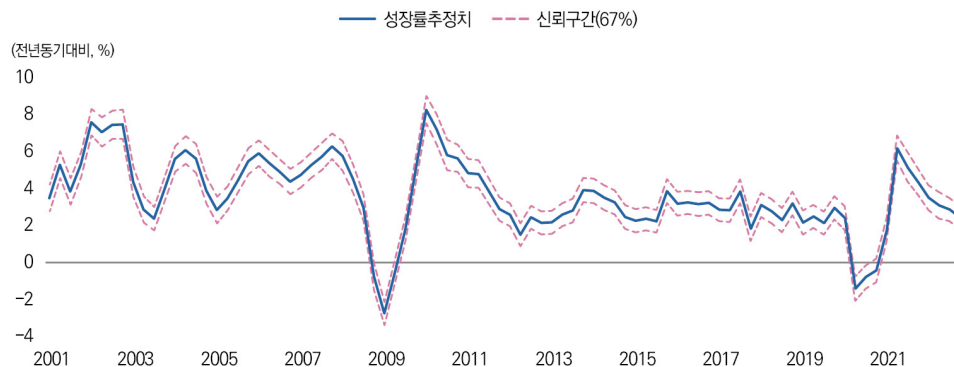
□ 당분기 GDP 성장률 추정을 위한 초단기 예측모형

- 월별 실물지표의 증가율과 실질GDP 성장률 간의 연관관계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분기 GDP 성장률을 예측
- 현재 당분기 GDP 성장률은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표
 - GDP속보치는 1개월, 잠정치는 2개월 후 발표
- 신속한 경기판단과 전망을 위해서 동 모형을 이용 당분기 성장률을 추정

□ 단순, 확장, 수요측, 공급측의 네 가지 부문별 모형으로 구성

- 단순 모형은 월별로 발표되는 제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을 이용하여 당분기 실질GDP 증가율을 예측
 - 확장 모형에서는 산업형태별로 제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취업자 수 증감률을 세분
 - (예) 제조업생산은 가공조립형·기초소재형·생활관련형 제조업으로 세분 가능
 - 수요측 모형에서는 지출항목별로 GDP 증가율을 예측하고 이를 다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당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
 - 당분기GDP = f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통관수출)
 - 민간소비 등 각 항목별 GDP 증감률은 관련 월별지표를 이용하여 예측
 - 공급측 모형에서는 산업별로 GDP 증가율을 예측하고 이를 다시 결합
 - 당분기GDP = f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순생산물세)
- #### □ 단순명료한 방법으로 당분기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오차도 작은 장점
- 경기분석, 단기 및 중기 경제전망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이 가능

[초단기 예측모형에 의한 당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추이]



[초단기 모형을 이용한 4/4분기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증가율(실적치)			증가율(예측치)					
	1/4	2/4	3/4	1/4	2/4	3/4	전제치 10월	이용 11월	4/4분기 예측치 변경효과%p
간편모형	3.0	2.9	3.1	3.5	3.1	3.0	3.0	2.4	▽0.6
간편모형(확장)				3.4	2.9	2.3	2.6	2.1	▽0.5
공급측 초단기 모형				3.6	3.9	3.2	3.0	2.3	▽0.7
수요측 초단기 모형				3.6	3.5	3.8	3.6	2.7	▽0.9
결합예측(단순평균)				3.5	3.4	3.1	3.1	2.4	▽0.7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1133/1>

[초단기 입력지표 추이 및 4/4분기 전제치]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월별 실적				분기 실적			4/4분기 전제 및 차이		
		9월	10월	11월	12월	1/4	2/4	3/4	10월	11월	차이,%p
산업 생산	제조업생산	0.6	-1.2	-3.8	..	4.7	4.2	1.2	-1.1	-2.5	▽1.4
	기초소재형	-6.0	-7.1	-6.7	..	2.2	0.7	-3.7	-7.1	-6.9	▲0.2
	가공조립형	1.5	0.0	-5.5	..	9.8	8.3	2.2	0.2	-2.8	▽3.0
	전기가스수도업생산	1.6	-1.2	-2.6	..	5.0	3.5	2.7	-0.1	-1.9	▽1.8
서비스업	서비스활동	6.0	4.8	2.6	..	4.1	5.4	6.0	5.0	3.7	▽1.3
	생산자서비스	5.4	4.0	3.0	..	0.9	3.0	3.9	4.7	3.5	▽1.2
	유통서비스	8.6	5.9	1.8	..	7.3	9.3	9.0	5.9	3.8	▽2.1
	개인서비스	7.5	6.4	2.9	..	5.7	6.8	9.1	6.4	4.6	▽1.8
고용	총취업자 수	2.6	2.4	2.3	1.9	3.8	3.2	2.8	2.4	2.3	▽0.1
	제조업취업자 수	5.3	4.7	2.3	2.0	1.5	3.0	5.0	4.6	3.5	▽1.1
	건설업취업자 수	-0.6	0.6	0.5	-0.6	3.8	2.7	-0.3	0.6	0.5	▽0.1
소비	소매판매액지수	-0.9	-0.7	-2.2	..	2.8	-0.1	-0.2	-0.7	-1.4	▽0.7
	도소매생산지수(자동차포함)	-0.9	-0.5	-2.6	..	2.8	0.5	0.0	-0.3	-1.6	▽1.3
설비 투자	설비투자지수	12.0	16.6	11.0	..	-1.3	-2.4	7.5	16.8	13.6	▽3.2
	기계설비내수출하(선박제외)	12.0	8.3	6.9	..	-1.3	-3.3	6.0	8.4	7.6	▽0.8
	기계류수입액	8.7	12.2	2.5	..	9.1	6.0	10.6	12.2	7.1	▽5.1
건설 투자	건설기성액	4.2	8.9	10.2	..	-1.5	2.1	3.9	8.3	9.5	▲1.2
	건설용중간재내수출하	2.4	-0.8	-3.6	..	-4.1	-8.5	-2.7	-0.3	-2.2	▽1.9
	국내건설수주	38.6	-40.7	-16.4	..	1.2	10.0	24.5	-44.1	-28.0	▲16.1
수출	통관수출액	2.3	-5.8	-14.0	-9.5	18.4	13.0	5.8	-5.7	-10.1	▽4.4
	수출단가	-1.4	-3.5	-5.3	..	13.7	11.1	1.5	-3.5	-4.4	▽0.9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1133/2>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1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27-001997-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